Step 1

```
mjswindells@ubuntu:~$ read _2018603020

Kim Hee Chan

mjswindells@ubuntu:~$ echo $_2018603020

Kim Hee Chan

mjswindells@ubuntu:~$
```

read [옵션] [변수] : 변수에 문자열 할당

옵션:

1) -t: 사용자로부터 입력 받을 시간 입력 (시간 초과시 입력을 안 받음)

2) -p: 입력 프롬프트의 형태를 지정하며 문자열을 이용하여 출력

Ex) 이름을 입력하시오: Kim Hee Chan -> 빨간색 글씨를 띄움

Read -p "이름을 입력하시오: " name_value

echo : 변수나 문자열을 출력 (변수일 경우 앞에 \$를 붙임)

문자열에 공백이 포함된 경우 ""를 사용

echo에 색 출력 : ctrl+v+[+ [=> ^[[code_number+m

ex) 빨간색 : ^[[31m

```
mjswindells@ubuntu:~$ export _2018603020
mjswindells@ubuntu:~$ export | grep _2018603020
declare -x _2018603020="Kim hee Chan"
mjswindells@ubuntu:~$ /bin/bash
mjswindells@ubuntu:~$ echo $_2018603020
Kim hee Chan
mjswindells@ubuntu:~$
```

export [변수]: 변수를 환경변수로 만듬

환경변수 : 프로그램이 실행을 할 때 가장 먼저 찾는 디렉토리는 현재 디렉토리이다.

따라서 cmd창에서 현재 위치에 내가 실행하려는 파일이 없으면 컴퓨터는 찾지

못한다. 그렇기에 파일이 있는 경로를 들어가서 파일을 입력해주어야 하는데

환경변수로 설정을 할 경우 다른 경로에 들어가서 파일을 실행해도 실행이 가능하다.

- 1. export _2018603020 으로 환경변수로 만들었다.
- 2. export 명령어로 현재 환경변수로 설정이 되었는지 확인하였다.
- 3. /bin/bash 로 자식 프로세스를 생성 (이때 PID가 다르기에 다른 쉘에서 작동한다고 생각하자)
- 4. 자식 프로세스기에 원래는 echo \$_2018603020이란 변수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 맞다 하지만 환경변수로 설정을 하였기에 _20186030 변수가 어떤 경로에 있던 찾을 수 있다.

Step 3

mjswindells@ubuntu:~\$ PS1="\u@\s!" mjswindells@bash!

PS1 변수 : 프롬프트 모양을 바꿀 수 있다.

변수 이름:

1) ₩d: 날짜 표시

2) ₩s: 쉘의 이름

3) ₩u: 사용자 이름

4) ₩w: 현재 작업 디렉토리의 절대 경로명

5) ₩W: 절대 경로명 중 마지막 디렉토리 명

Step 4

mjswindells@bash!echo ^[[34m \$_2018603020

Step 1 에서 설명한 방식으로 색을 지정할 수 있다

글자색 코드:

1) 30: 검정색(회색)

2) 31 : 빨간색(밝은 회색)

3) 32 : 초록색(밝은 초록)

4) 33 : 갈색(노랑색)

5) 34: 파란색(밝은 파랑)

6) 0: 기본 화면색

가능하다

export 명령어는 로그인 쉘에 한해 일시적으로 적용이 된다.

따라서 로그아웃을 하거나 재부팅을 하게 되면 지정한 변수는 모두 초기화가 된다.

이때 환경변수 값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여면 bash.bashrc 또는 bash.bash_profile 과 같은 특정 로그인 스크립트 파일에 export 명령문을 붙여서 사용해야한다.

```
/usr/share/command-not-fo
return $?
else
printf "%s: command not f
return 127
fi
}
fi
export _2018603020="Kim Hee Chan"

"bash.bashrc" 73L, 2354C
```

위와 같이 bash.bashrc 에 export로 설정한 변수를 쓴다.

그후 어떤 계정에서 사용을 하던 _2018603020에든 "Kim Hee Chan"으로 초기화 되어있다.